손잡은 '野 3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8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지원유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나경원 서울시장후보가 18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서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결국 나설까? … 범야권 등판시기 촉각

김효석 의원 "박 후보 승리 불쏘시개 돼야" … 한나라 대책마련 분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의 박원순 후보의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행보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선거일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 원장이 박원순 후보 지원에 나설 경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나경원 후보의 기세를 꺾으면서 야권 승리의 결정적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 출동,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점차 보수표심의 결집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나 후보가 TV 토론 등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는데다 여권의 파상적인 검증 공세에 밀리면서 박 후보 성향으로 분석됐던 중도층과 무당층의 이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원장이 박 후보 지원에 나선다면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반전의 계기 및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박 후보를 지키고 국민의 열망이 타오를 수 있도록 불쏘시개가 돼줄 것을 요청한다"고 안 원장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병헌 의원도 "5% 지지율을 받았던 박 후보가 범야권 유력주자로 부상한 것은 안 원장의 지지 선언이 결정적이었다"며 "당연히 안 원장이 선거에 참여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안 원장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하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박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 자체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안 원장이 현 상황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차기 대선 구도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주 구도가 강화되는 반면 안풍(안철수 바람)으로 대변되는 변화와 개혁의 흐름도 약화될 수밖에 없어 안 원장의 '결단'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범야권에서는 안 원장의 구체적인 '등판' 시기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번 주말을 전후해 안 원장이 박 후보에 대한 지지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함께 선거일 직전에 지지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 대학원장이 준 공무원 신분이어서 선거운동에 직접 나서기 어렵고 정치성이 강한 성격이 아닌데다 이미 대권 도전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도 안 대학원장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은 안 원장의 지원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박 후보 지원에 나설 경우, 한나라당 등 여권이 두 사람을 한 묶음으로 묶어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원장의 박 후보 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장 선거전은 사실상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부상하면서 초미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R&D특구 지방세 감면

김영진 의원, 활성화 지원 입법 추진

광주 R&D(연구개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8일 "올 1월 확정된 광주R&D특구 육성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입주기업 및 연구소가 취득 또는 사용하고 있는 특구 내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구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특구 내 부동산에 대해 오는 2014년 연말까지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씩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정보통신·생명공학 등 특정분야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전액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기술 창조와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나 입주 기업, 연구소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내곡동 사저' 국조·고발 추진

민주당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경호처장이 사임한다고 하지만 국민적 분노가 청와대로 향하고 서울시장 선거의 악재로 작용하니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사실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와 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대변인도 "청와대는 비리가 있지 않지만 실수나 오해가 있어서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만방자한가"라며 "편법증여 의혹과 업무상 배임죄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를 비리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도 "청와대가 올해 3월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에서 내곡동 부지 내 한정식집 건물의 가격이 1억2368만원으로 나왔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지은 지 31년된 건물이라며 공시가격을 0원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울시장 보선 D-7

초박빙 판세 투표율 45%가 승패 가른다

여야 '고정표 다지기' 총력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8일 앞둔 18일 초박빙의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고정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당협위원장회의에서 "조용한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밋밋하게 가서는 초박빙을 깰 수 없다"며 "지지세를 결집하고 이들이 총력으로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와 선거현장을 오가며 전방위로 뛰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다"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당에 재차 총동원령을 내리고, 자신은 시내 곳곳으로 돌며 선거지원에 나섰다.

박 후보 선대위 상임위원장인 손 대표가 이처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것은 일선 현장에 '투신'하는 의원과 당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사자인 두 후보도 서울 전역을 누비며 시민과의 접촉을 강화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서울의 동북지역인 노원과 성동구를 찾아 거리 유세를 펼치는 등 골목길 유세전에 속도를 냈다.

나 후보는 경차를 개조한 유세차량을 활용, 서울을 총 8개 권역으로 나눠 전역을 누비는 '지그재그식 유세전'에 뛰어든 상태다.

범야권 박원순 후보는 무상급식과 보육에 대한 정책 협약식을 통해 복지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교사협의회와 잇따라 정책협약식을 갖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이날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 참석,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소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접전이 이어지면서 투표율이 당락을 가르는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승패의 분수령이 될 투표율로 45%로 보고, 이를 넘으면 박 후보에게, 그에 못 미치면 나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6·2 동시 지방선거 때부터 나타난 트위터를 통한 투표 독려도 막판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지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율 25.7%의 대부분이 한나라당 지지층이라고 가정한다면 대략 투표율 45% 수준에서 여야 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증인 채택 이견

국회 정보위 국정원 국감 파행

국회 정보위는 1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로 파행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군에 의한 민간인 사찰'로 간주,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정감사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증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행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증인 채택 불가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을 보이콧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현행 국정감사법에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 채택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도 조현오 경찰청장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했다. 민주당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과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사건 등을 질의하기 위해서는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건의 내용을 잘아는 실무자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맞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미화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수완지구 상가 분양 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고급식당
독서실·PC방·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062)961-3377

★건축시공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도시형 주택전문)
• 수익성상가 • 안전한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건축·분양 임대
(검토부터 기획마감까지 원스톱)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해드립니다.
★원룸 상가 기타 건축할수 있는 토지 항시 구합니다★

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2억 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앞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안집(도시가스,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